

노르웨이 농업현황과 시사점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국가개관

바이킹, 숲, 피오르드, 고등어, 뭉크의 나라 노르웨이는 자연이 준 수많은 선물과 예술로 가득 차 있는 국가이다. 유럽대륙의 가장 서쪽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노르웨이는 일찍이 9세기부터 바이킹족들의 활개로 유럽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해상원정을 통해 아일랜드, 카스피해, 흑해까지 진출하며 아랍, 그리스 상인들과 교류해왔다. 해상으로 주변국과 왕래하며 일찍부터 교역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노르웨이는 11세기 바이킹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무역업이 잠시 주춤하게 된다. 40년 동안은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스웨덴과 덴마크-노르웨이 연합간의 키엘 조약¹⁾의 영향으로 스웨덴의 지배를 받는다. 오랜 시간 동안 주권을 상실한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통해서 물자가 이동되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도매상들은 인근 덴마크나 스웨덴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시중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류 시장의 구조이다.

1905년 덴마크와의 연합에서 독립하여 자주 국을 선언한 노르웨이의 국민은 주권에

* (crystalism14@krei.re.kr 02-3299-4034).

1) 키엘 조약(Treaty of Kiel, 1814): 덴마크로 진격한 스웨덴과 덴마크-노르웨이 연합 간의 조약으로서, 노르웨이는 스웨덴에 굴복하였으며,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영토였던 대서양의 패로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유지하게 됨. 이후 노르웨이는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스웨덴 국왕을 노르웨이 국왕으로 인정함.

예민하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영향도 있지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점령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대륙 내의 국가들이 경제연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하였으나 노르웨이는 참여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U 내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대신 자국의 부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세계경제에 불황이 찾아오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휘청할 때 경제부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은 노르웨이는 여러 국가의 지배를 겪었지만, 여전히 노르웨이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94.4%가 노르웨이인으로 그 전통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노르웨이의 인구 규모는 약 515만 명(2014년 7월 기준)으로 연 1.19%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79.4%가 도시에 살고 있고, 지리적인 영향으로 농촌에는 거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 인구의 20%인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²⁾ 국토는 남한의 약 4배에 달하는 3,652만 7,000ha로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Svalbard island), 북극의 얀마옌(Jan Mayen) 등을 소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농지면적과 재배면적은 농촌인구와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 노르웨이 국가 개관

구 분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인구	명	4,768,212	4,828,726	4,889,252	4,953,088	5,018,573
농촌인구	명	1,023,926	1,022,966	1,021,756	1,021,079	1,020,527
국토면적	천 ha	30,547	30,547	30,425	30,425	36,527
농지면적	천 ha	1,024	1,014	1,006	998	992
재배면적	천 ha	845	835	826	817	811
총 GDP	백만 달러	453,885	378,849	420,946	490,807	500,030
1인당 GDP	천 달러	95	78	86	99	100
농업 GDP	백만 달러	5,403	5,195	7,051	7,043	5,857

자료: The World Bank Data.

2) CIA the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o.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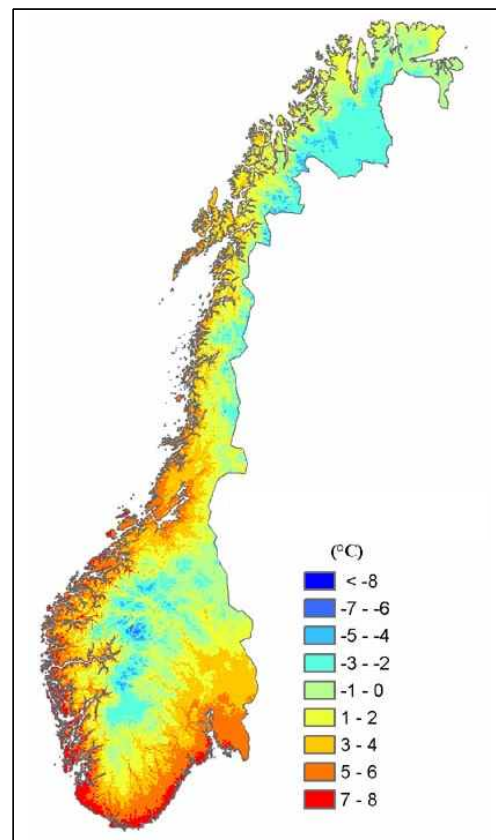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인구는 한국에 비하면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이다. 기준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총인구의 17.8%가 농촌인구인 것에 비해 노르웨이는 농촌인구의 비율이 20.1%로 조금 더 많은 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또한 총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농촌인구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세계 2위(2014년, IMF)이다. 2009년 세계 경기 불황으로 잠시 주춤했던 경제가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노르웨이의 총 GDP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업 GDP는 2010년 높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1.1. 지형과 기후

노르웨이는 국토 중앙에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분리되어 있으며 복잡한 피오르드 해안을 따라 도시와 농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학적 이유로 지역 간 교통이 원만하지 않아 대부분의 인구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 대신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국토 전체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이고, 해안선을 따라 5만 개가 넘는 섬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럽대륙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해와 북 아틀란티스해를 끼고 있다.

노르웨이의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편이다. 국토의 서쪽은 해안에 둘러싸여 있으며 걸프해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 평균 연평균 기온은 6.9℃로, 여름 최고 기온은 28.2℃, 7월 평균 기온은 16.4℃이고, 겨울 최저기온은 -19.7℃, 1월 평균 기온은 -4.3℃이다. 노르웨이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안과 서해안 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로거랜드(Rogaland)에 위치한

그림 1 노르웨이 연평균 기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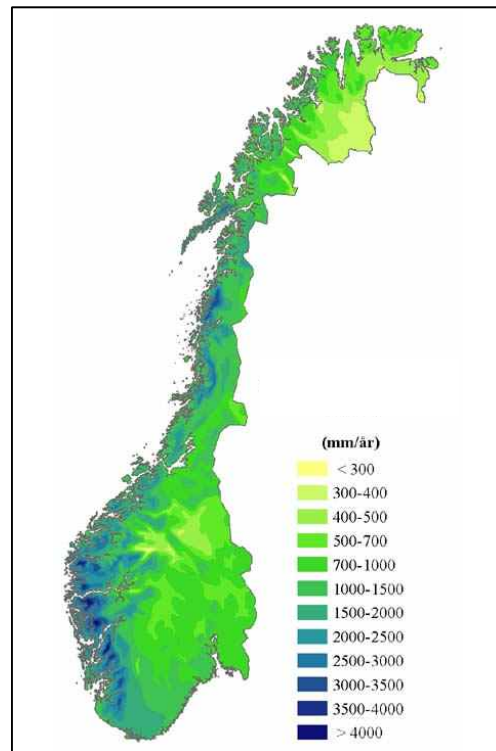


자료: (http://met.no/english/climate_in_norway/).

스쿠덴스하벤(Skudeneshavn)은 연평균 7.7℃를 유지하고 있고, 린데스네스는(Lindesnes) 1994년 9.4℃를 기록한 적이 있다. 산악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핀마르크(Finmark) 고원으로 -3.1℃~-5℃, 산악지대는 연평균 -4℃이다. 노르웨이는 겨울왕국의 나라로 불릴 만큼 추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름의 기후가 한국보다 선선한 것을 제외하면 비슷하다. 노르웨이도 다른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내륙지방과 산간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춥다.

노르웨이는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강수량을 기준으로 전선(frontal), 산악성(orographic), 소나기성(showery) 강수지역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노르웨이 내 지역이 전선강수지역으로 분류된다. 북극전선지대를 따라 태풍이 형성될 때, 따뜻한 기류가 차가운 공기층 위로 올라가면서 식혀주고 비를 만들어 준다. 사계절 내내 북극의 전선기류가 노르웨이의 습한 기류에 영향을 주며 가을과 겨울에는 잦은 태풍을 형성하게 한다. 산악성 강수지역은 노르웨이 내륙지방의 산악지대의 기류와 해안가의 기류가 만나는 곳이다. 해안가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가장 많은 비를 뿌린다. 마지막으로 소나기성 강수지역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곳으로, 대부분 전선과 산악성 강수지역과 겹치는 곳이다. 노르웨이의 겨울은 11월부터 4월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노르웨이 중서부 산악지대와 피오르드 지역은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교통통행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그림 2 노르웨이 강수량 분포



자료: (http://met.no/english/climate_in_norway/).

1.2. 경제

노르웨이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다.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여부를 결정하였고, 유럽 경제에 편입하여 거대한 공동체로서의 편익을 뒤로하고 자립경제를 택하였다. 당시 EU

가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국가 주권의 이양반대와 석유, 어업자원 등 부존자원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수산업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EU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것 대신 스스로 사는 길을 택하였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도 EU 가입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하였다.

EU 가입을 포기한 노르웨이의 선택은 노르웨이 경제에 부의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당시 포기하지 않았던 부존자원으로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U 가입 조건으로 어업 생산쿼터가 제한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EU의 국가들은 현재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노르웨이에서 대부분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의 경제는 에너지 자원, 해운, 수산업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8년 발견한 북해산 원유를 계기로 기존 농수산업과 해운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해양플랜트, 석유 시추 등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70개의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원유를 추출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총 석유 매장량은 1억 3,200만 m^3 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 석유는 대부분 수출되고 일부분만 규모가 작은 내수경제에 맞춰 자동차 연료 생산, 가정 및 산업 난방과 석유 화학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노르웨이 총 GDP의 21%, 국가 재정수입의 26%를 감

그림 2 노르웨이 오스베르그 센터



자료: (www.offshore-technology.com).

당하고 있다.³⁾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노르웨이의 지형과 기후는 서부지역에 강우량을 집중시켜 폭포와 하천을 통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흘러 보낸다. 산악지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호수뿐만 아니라 댐과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저장하여 겨울에 사용하고 있다. 수력발전과 파력발전,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생물량 발전 등 대안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간 20톤 와트의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며 특히, 주거용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있다.⁴⁾

이어 노르웨이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산업이다. 노르웨이의 수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고등어를 포함하여 노르웨이 연안의 청정바다에서 포획한 수산물과 양식용 수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품목은 청어, 고등어, 연어, 송어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노르웨이의 풍부한 어업자원에서 부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수산물은 석유 다음으로 많은 노르웨이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풍부한 수산업과 원유 및 천연가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활용하여 노르웨이는 사회간접시설과 복지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높은 사회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GDP의 56.8%를 세금으로 걷는다. 젊은 층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의 평균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67세 이상의 노인은 연금소득을 받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보험과 같은 의료 복지 서비스와 유치원 무상교육 및 차별화된 육아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초등 교육, 병원 서비스, 노령자 서비스, 실업과 각종 사회 서비스, 경제 개발, 도로 등의 문제를 담당하고, 고등교육과 교회 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작은 내수경제에 비해 차고 넘치는 부존자원과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은 노르웨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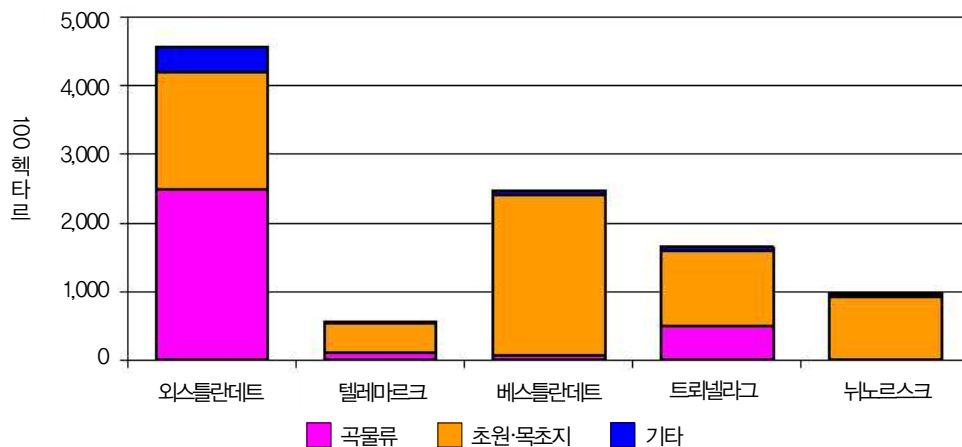
3) 코트라 글로벌 원도우.

4)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2. 농축산물 생산

노르웨이는 산악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 농업이 집중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농경지는 주로 수도인 오슬로와 트론헤임(Trondheim), 남부와 서부 해안가 안쪽이나 호수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오슬로가 있는 외스틀란데트(Østlandet, 동부 노르웨이)는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며 텔레마르크주(Telemark, 동부)와 트뢰넬라그주(Trøndelag, 중부)에서도 일부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베스틀란데트(Vestlandet, 서부)는 가장 많은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딸기, 당근, 순무 등의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4 노르웨이 농경지 분포



자료: (<http://www.ssb.no/jordbruksareal/>).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은 수산물이다. 연어, 청어, 송어 등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국가인 만큼 수산물 소비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훈제 연어와 절인연어인 그라브락스(Gravlax), 송어 등을 메뉴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구, 아귀, 넙치 등을 회로 먹기도 한다.

수산물을 제외하고, 농축산물 생산액 상위권에 육류와 감자, 밀이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노르웨이 국민의 식습관을 알 수 있다. 감자요리와 빵을 주식으로 먹고, 다른 국가와 달리 수렵고기(Game meat)를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록, 말코손바닥사슴, 붉은 사슴, 너조 등이 수렵고기에 속하며 노르웨이인들은 이 고기들을 크림소스와 함께 즐겨 먹는다. 또한, 치즈 중 염소우유로 만든 브루노스트(brunost)는 노르웨이에서 즐겨먹는 별미로 알려져 있다.⁵⁾

표 2 노르웨이 농축산물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톤

순위	품 목	생산액	생산량
1	우유(젖소)	461,652	1,584,366
2	쇠고기	210,678	77,989
3	돼지고기	202,193	131,530
4	닭고기	115,360	80,988
5	양고기	62,053	22,790
6	조란	51,294	61,845
7	감자	50,634	304,700
8	밀	25,292	274,700
9	딸기	12,381	9,122
10	칠면조고기	11,770	9,006
11	당근, 순무	11,396	45,677
12	원모	8,324	4,351
13	수렵고기	7,398	3,400
14	우유(염소)	7,011	20,892
15	상추, 차커리	6,964	14,896
16	사과	4,838	11,440
17	토마토	4,494	12,159
18	라즈베리	4,377	2,262
19	양배추, 배춧속과 식물	3,673	24,547
20	양파, 쪽파	3,538	17,339

주: 2012년 생산액 기준임.
자료: FAOSTAT.

노르웨이에서 주로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신선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축산 가공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2.1. 농산물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작물은 사료용 호박이다. 노르웨이는 육류 소비가 많은 만큼 사료생산도 중요한데, 육류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원모 생산 국가인 만큼 많은 양의 모피용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도 방대하다. 사료용 호박, 쪽파, 양배추를 보면 식량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식량작물이다. 보리, 귀리, 밀, 호밀 등의 곡물류

5)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와 감자와 같이 기본적인 식량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작물 또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보다 동물 사료로 더 많이 이용된다. 곡물류는 주로 노르웨이 동부와 중앙의 저지대에서 재배된다. 이 지역은 곡물을 재배하기 적합한 기후와 풍토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슬로와 트론헤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을 구하기가 수월하다. 채소류는 양파, 쪽파, 오이, 토마토, 컬리플라워(Cauliflower), 브로콜리, 상추, 치커리, 유채, 과일류로는 사과, 딸기, 라즈베리를 주로 생산한다. 최근 생산량 변화를 보면 곡식류 중 보리, 귀리, 밀이 감소추세이고, 과일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호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건강 관심도가 높아진 노르웨이인들의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대체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노르웨이 신선농산물 생산 상위 품목

품목						단위: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사료용 호박	10,700,000	10,700,000	10,500,000	10,500,000	10,500,000	-
보리	472,964	541,161	494,581	573,200	479,600	-16.3%
감자	332,500	333,200	295,500	304,700	320,300	5.1%
귀리	276,472	298,948	231,311	231,900	213,600	-7.9%
밀	278,049	331,358	284,558	274,700	199,400	-27.4%
양파, 쪽파	20,552	17,625	23,068	22,024	24,827	12.7%
사료용 쪽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오이	17,797	16,503	16,593	14,813	17,758	19.9%
토마토	12,672	12,923	11,944	12,159	12,975	6.7%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13,296	11,797	12,126	11,982	12,634	5.4%
상추, 치커리	18,426	11,590	13,722	14,643	12,430	-15.1%
호밀	27,400	34,196	16,273	4,900	11,400	132.7%
유채	6,859	10,203	8,598	10,500	11,000	4.8%
사과	13,581	11,484	8,469	10,976	9,640	-12.2%
사료용 양배추	7,000	7,000	7,000	7,000	7,000	-
딸기	9,119	8,329	7,549	9,110	6,158	-32.4%
원두콩	2,364	3,360	2,350	2,685	3,000	11.7%
라즈베리	3,414	2,144	1,955	2,235	2,017	-9.8%

주: 2013년 생산량 기준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 2014.

노르웨이에는 대부분 일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소수의 품목만 가공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그 중 농산물 가공식품은 알코올류와 유지류로, 보리맥주,

대두유, 쇼트 마가린, 유채유, 해바라기유, 땅콩유, 아마씨유가 있다. 노르웨이인들은 가정에서 맥아를 가지고 맥주를 주조하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된 노르웨이의 맥주 양조장은 북극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트롬소(Tromsø)에 위치하고 있다.⁶⁾ 해바라기유와 땅콩유, 아마씨유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나머지 가공식품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중 땅콩기름은 땅콩 종자에서 착유한 원유를 정제하여 식용에 알맞도록 가공한 것으로, 샐러드유, 튀김유로 주로 사용하고, 마가린이나 쇼트닝의 가공원료로 쓰이기도 한다.⁷⁾ 아마씨는 생명의 씨앗으로 불리며, 슈퍼 푸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캐나다, 미국, 중국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그 밖에 네덜, 호주,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오메가 3를 포함하여 신체에 이로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독일과 일부 유럽에서는 씨앗 자체를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고 있다. 심장질환 및 각종 혈관과 관련된 질병, 뇌졸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표 3 노르웨이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품목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보리맥주	251,700	243,600	234,600	230,400	233,800	1.5%
대두유	70,500	73,300	72,500	71,900	72,800	1.3%
쇼트 마가린	58,700	58,200	58,000	58,000	57,800	-0.3%
유채유	6,900	7,100	8,000	7,400	5,600	-24.3%
해바라기유	3,329	3,968	4,356	4,356	4,356	-
땅콩유	2,740	2,460	2,430	3,038	3,038	-
아마씨유	890	945	1,016	1,016	1,016	-

주: 2013년 생산량 기준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 2014.

2.2. 축산물

노르웨이인들은 육류를 많이 소비한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수렵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육류 소비량은 1980년대 초반 대비 2006년 약 70%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웃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쿼터제로 낮은 관세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말고기 생산량은 줄어들고, 닭고기, 소고기, 양고

6) 노컷뉴스, 2014.07.16. (<http://www.nocutnews.co.kr/news/4059854>).

7) 식품과학기술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3203&cid=42412&categoryId=42412>).

8) 광양시청.

기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농장들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있다. 특이한 점은 양가축, 소가축, 원모와 같이 동물 털과 가죽을 많이 생산한다는 점인데, 핀란드에 이어 모피를 얻기 위해 푸른여우·은빛여우·밍크 등 다양한 동물을 사육하는 국가로 유명하다. 오슬로 패션주간 런웨이에서 모피를 퇴출시키고, 정부가 모피농장 금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모피용 동물농장에서 가죽과 털이 생산되고 있다.

표 4 노르웨이 축산물 생산 품목

품목						단위: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우유(젖소)	1,554,291	1,558,520	1,527,543	1,584,408	1,577,831	-0.4%
돼지고기	123,623	128,753	130,787	131,559	127,516	-3.1%
닭고기	71,229	75,879	75,172	81,051	104,030	28.4%
소고기	84,787	83,508	81,638	77,982	83,696	7.3%
조란(닭)	58,916	59,556	58,829	61,845	65,084	5.2%
양고기	23,927	24,438	23,382	22,777	23,424	2.8%
우유(염소)	21,510	21,400	20,964	20,892	20,386	-2.4%
칠면조고기	10,153	8,485	9,006	9,851	9,851	-
양가축	6,991	7,223	7,107	6,803	7,050	3.6%
소가축	7,814	7,671	7,640	4,410	4,685	6.2%
원모	4,372	4,368	4,368	4,351	4,351	-
수렵고기	3,191	3,500	3,300	3,400	3,400	-
천연꿀	1,100	1,300	850	850	920	8.2%
말고기	441	416	431	367	367	-
염소고기	295	310	256	288	328	13.9%

주: 2013년 생산량 기준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 2014.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인 노르웨이는 우유, 치즈, 생크림, 버터, 연유 등을 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매년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3년 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 가공식품은 전년과 비슷한 생산량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낙농업계의 선두주자인 타인(Tine)사가 치즈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국내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였다. 정부에서 해외 시장으로부터 낙농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도입하였지만, 수입치즈에 의해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서 노르웨이 낙농업계에도 붐이 일어나고 있다. 유기농업 선진국인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하면 한참 뒤쳐졌지만, 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

지면서 전체 유제품 중 유기농 유제품에 대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기농 유제품에서는 타인과 쿵(Coop) 협동조합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각각 45%와 35%의 성장세를 보였다.⁹⁾

표 5 노르웨이 축산 가공식품 품목

단위: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탈지유	576,380	578,680	569,480	569,480	569,480	-
치즈(젖소)	75,000	75,000	74,000	75,000	75,000	-
생크림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
버터	15,700	15,800	15,300	15,100	15,600	3.3%
무기당 연유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
탈지분유	6,000	6,000	6,000	6,000	6,000	-
우지	2,777	2,970	3,083	3,083	3,083	-
치즈(염소)	1,200	1,200	1,200	1,200	1,200	-
건조유장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유	350	350	350	350	350	-

주: 2013년 생산량 기준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 2014.

또한 우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축 위주로 양, 소, 돼지, 염소, 말 등을 주로 사육하고, 닭, 칠면조, 오리, 토끼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생산량은 양과 토끼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칠면조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표 6 노르웨이 살아있는 동물 생산 품목

단위: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양	2,289,862	2,308,291	2,300,471	2,223,661	2,223,661	-
소	878,134	874,529	864,139	861,924	849,984	-1.4%
돼지	845,019	850,383	854,334	855,704	848,063	-0.9%
염소	68,273	67,485	67,232	65,441	64,027	-2.2%
말	35,625	36,712	36,424	36,340	34,304	-5.6%
닭	3,897	3,953	3,893	3,941	3,900	-1.0%
칠면조	627	411	458	616	459	-25.5%
오리	110	110	115	117	115	-1.7%
토끼	2	2	2	2	2	-

주: 2013년 생산량 기준 상위 품목임
자료: FAOSTAT 2014.

9) (<http://www.euromonitor.com/dairy-in-norway/report>).

3. 농축산물 교역

3.1. 노르웨이 농축산물 교역연왕

3.1.1. 수출

노르웨이는 주로 유럽 인근 국가들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노르웨이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스웨덴으로, 총 수출액의 28.2%를 차지하며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2위 수출 상대국은 덴마크로 노르웨이의 농축산물 교역은 역사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현지 수출·입 업체들 보다 덴마크나 스웨덴 업체들을 통해 유통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표 7 노르웨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상대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비중
	총 수출액	693,354	774,239	616,267	682,071	774,051	13.5%	100.0%
1	스웨덴	204,525	255,848	183,402	200,637	217,958	8.6%	28.2%
2	덴마크	127,167	111,268	85,786	101,107	107,745	6.6%	13.9%
3	미국	80,897	90,325	80,131	89,798	96,106	7.0%	12.4%
4	독일	53,796	51,453	44,799	43,692	43,210	-1.1%	5.6%
5	핀란드	26,500	32,978	38,972	38,828	41,676	7.3%	5.4%
6	러시아	7,369	10,082	8,966	14,898	39,851	167.5%	5.1%
7	영국	33,742	43,988	32,830	30,845	37,667	22.1%	4.9%
8	호주	16,520	16,163	17,234	19,490	21,400	9.8%	2.8%
9	네덜란드	9,346	10,344	15,974	12,683	20,313	60.2%	2.6%
10	이탈리아	13,169	13,723	8,208	14,283	17,526	22.7%	2.3%
11	캐나다	14,164	13,436	10,144	14,186	15,770	11.2%	2.0%
12	스위스	2,277	1,805	1,698	9,541	15,333	60.7%	2.0%
13	벨기에	8,135	14,066	10,884	12,078	10,698	-11.4%	1.4%
14	프랑스	13,098	14,886	4,959	2,759	9,777	254.4%	1.3%
15	중국	3,767	6,065	5,492	4,620	9,767	111.4%	1.3%
16	스페인	4,745	5,758	5,734	6,710	6,238	-7.0%	0.8%
17	아이슬란드	7,006	10,579	5,201	8,346	6,061	-27.4%	0.8%
18	페로 제도	11,364	1,898	4,722	9,178	5,961	-35.1%	0.8%
19	터키	4,756	3,282	3,003	5,795	5,519	-4.8%	0.7%
20	아랍에미리트연합	1,543	4,555	1,654	1,878	5,258	180.0%	0.7%

자료: FAOSTAT(2014).

농축산물 수출 중 가장 주목할 국가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이다. 2011년 기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1배, 1.7배, 2.5배 증가하였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은 전년대비 1.2배 증가한 339만 1,000달러를 기록하였고, 노르웨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상위 수출 품목은 스웨덴, 러시아, 미국, 핀란드, 덴마크 등으로 주로 수출된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스웨덴, 러시아, 미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57.1%가 수출된다. 치즈는 미국, 호주, 캐나다로 전체 수출량의 75.1%가 수출되며, 대두깻묵의 경우 100% 스웨덴과 핀란드로 수출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수출되는 기타 초콜릿, 소가죽(염장), 비 알코올음료는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으로 90% 이상 수출된다.

표 8 노르웨이의 상위 수출품목별 수출 상대국

단위: 천 달러, %

품목	총 수출액	1위	2위	3위
기타 조제 식료품	104,368	스웨덴 (32.6)	러시아 (13.0)	미국 (11.6)
치즈	97,994	미국 (42.4)	호주 (18.8)	캐나다 (13.8)
대두깻묵	68,064	스웨덴 (71.7)	핀란드 (28.3)	-
추출물 (Crude materials)	44,388	덴마크 (28.7)	영국 (13.9)	러시아 (8.5)
기타 초콜릿 제품	37,594	스웨덴 (57.3)	덴마크 (21.9)	독일 (11.3)
증류주	27,347	독일 (53.8)	덴마크 (16.8)	스웨덴 (11.7)
소가죽(염장)	27,146	이탈리아 (41.3)	벨기에 (30.0)	스웨덴 (19.8)
기타 조제 유지	12,496	미국 (73.5)	스웨덴 (8.4)	캐나다 (4.7)
사료용 음식물쓰레기	7,129	덴마크 (62.9)	핀란드 (10.3)	그리스 (9.2)
비 알코올음료	6,608	스웨덴 (93.5)	아이슬란드 (3.0)	덴마크 (1.4)

주: 2011년 기준 수출액으로, ()는 각국의 수출 비중임
자료: FAOSTAT(2014).

3.1.2. 수입

노르웨이의 최대 수입 상대국 역시 스웨덴이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는 주로 유럽 인근 국가들과 남미,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교역 상대국 중 스웨덴과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리의 장점도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공통 인증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는 전체 노르웨이 농축산물 수입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9 노르웨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 상대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비중
	총 수입액	4,576,478	5,644,793	4,846,410	5,296,807	6,505,448	22.8%	100.0%
1	스웨덴	476,671	577,733	505,897	555,799	683,469	23.0%	10.5%
2	브라질	314,415	443,627	392,926	494,741	664,066	34.2%	10.2%
3	네덜란드	437,831	528,694	443,855	447,603	599,214	33.9%	9.2%
4	덴마크	514,069	632,223	471,721	514,153	551,848	7.3%	8.5%
5	독일	327,691	420,912	363,632	384,946	483,060	25.5%	7.4%
6	프랑스	299,876	387,698	316,188	354,315	460,660	30.0%	7.1%
7	스페인	298,406	353,373	337,216	344,147	372,402	8.2%	5.7%
8	이탈리아	260,153	310,455	281,932	306,934	357,053	16.3%	5.5%
9	영국	194,242	223,350	177,714	221,556	348,319	57.2%	5.4%
10	벨기에	139,619	168,455	154,191	161,020	192,703	19.7%	3.0%
11	미국	163,076	196,456	140,783	134,442	160,606	19.5%	2.5%
12	스위스	72,360	76,313	86,932	101,217	124,516	23.0%	1.9%
13	폴란드	58,853	79,564	73,933	76,839	93,957	22.3%	1.4%
14	중국	49,436	52,316	53,795	60,664	79,337	30.8%	1.2%
15	리투아니아	31,898	41,915	40,158	47,062	71,803	52.6%	1.1%
16	핀란드	86,749	83,711	61,625	72,879	69,806	-4.2%	1.1%
17	태국	37,483	47,137	46,428	64,039	65,625	2.5%	1.0%
18	남아프리카공화국	48,246	63,671	54,061	55,836	62,414	11.8%	1.0%
19	칠레	44,220	57,022	52,681	48,672	58,436	20.1%	0.9%
20	콜롬비아	45,698	51,575	41,933	46,026	55,246	20.0%	0.8%

자료: FAOSTAT(2014).

노르웨이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최대 수출 품목인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주로 브라질, 스웨덴, 덴마크에서 수입하고 있다. 두 번째 최대 수입 품목은 와인으로 육류

를 즐겨먹는 노르웨이는 인근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 와인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증류주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며, 두 번째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는 대두와 커피 생두를 수입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상위 품목들도 인근국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애완용 사료도 상위 수입품목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0 노르웨이의 상위 수입품목별 수입 상대국

단위: 천 달러, %

품목	총 수출액	1위	2위	3위
기타 조제 식료품	625,679	브라질 (43.2)	스웨덴 (10.3)	덴마크 (6.7)
와인	401,731	이탈리아 (31.5)	프랑스 (29.0)	스페인 (12.3)
유채유	379,460	네덜란드 (28.5)	영국 (27.4)	프랑스 (11.8)
추출물 (Crude material)	357,789	네덜란드 (37.2)	덴마크 (15.7)	케냐 (10.3)
페이스트리	249,850	스웨덴 (37.5)	독일 (11.0)	덴마크 (10.9)
대두	236,146	브라질 (84.6)	캐나다 (15.1)	오스트리아 (0.1)
그린커피(생두)	212,053	브라질 (48.8)	콜롬비아 (19.8)	과테말라 (10.1)
기타 초콜릿 제품	198,175	스웨덴 (27.5)	독일 (18.2)	네덜란드 (11.9)
증류주	163,042	프랑스 (36.8)	영국 (22.6)	아일랜드 (10.1)
애완용 사료	159,607	덴마크 (22.7)	네덜란드 (18.0)	영국 (15.5)

주: 2011년 기준 수출액으로, ()는 각국의 수출 비중임
자료: FAOSTAT(2014).

노르웨이 정부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2012년에도 해외시장으로부터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즈에 대한 관세와 요금제를 도입하였고, EU산 치즈에 대한 수입쿼터를 4,500톤으로 할당하였다. 이전까지는 목록에 있는 업체들이 수입쿼터를 나눠 갖고 목록에 없는 업체들은 나머지 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는 금액으로 전환되어 각각의 수입업체들이 노르웨이 치즈 쿼터를 분배하여 수입하였다.¹⁰⁾ 하지만 여전히 해가 지날수록 농축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국내 농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10) (<http://www.euromonitor.com/dairy-in-norway/report>).

3.2. 한국-노르웨이 교역연황

노르웨이는 한국과 1959년 3월 2일 수교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역파트너로 동반성장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로의 투자규모가 18억 5,6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의 투자규모 또한 4억 7,400만 달러였다. 노르웨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692명(2014년 기준)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3.2.1. 수출

한국과 노르웨이는 2006년 한-EFTA FTA 발효를 통해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4년 1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05년 9월 가서명 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축산품과 유제품, 신선과일, 곡물류, 양념채소, 임산물 등 대부분의 신선 및 일부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가 적용된다.

2014년 한국에서 노르웨이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33.0% 증가한 500만 달러였고,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은 관세혜택을 받는 가공식품이다. 그 중 큰 역할을 한 품목은 라면과 혼합 조제 식료품으로, 이외에도 기타 음료, 인스턴트면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타 파스타, 국수, 고추장, 라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면은 라면을 제외한 면류 식품을 총칭하는 품목으로 88%의 관세가 6.4%로 감축되어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기타 파스타는 인스턴트

표 11 한국에서 노르웨이로의 농축산물 상위 수출 품목

단위: 달러

순위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총 수출	332만 3,700	291만 613	290만 5,563	376만 5,786	504만 3,963	33.9%
1	라면	244만 7	247만 4,699	269만 5,138	252만 4,635	235만 5,610	-6.7%
2	혼합 조제 식료품	0	0	0	92만 50	208만 390	126.1%
3	기타 음료	0	0	3,078	9만 8,495	36만 3,906	269.5%
4	백삼정	0	9만 3,784	10만 3,355	10만 3,301	107,955	4.5%
5	인스턴트 면	0	0	0	2만 199	4만 1,871	107.3%
6	젤라틴	0	0	0	0	3만 3,662	-
7	기타 파스타	3만 8,144	5만 6,505	72,545	4만 1,170	1만 6,302	-60.4%
8	국수	1만 8,924	0	0	1만 4,745	1만 1,103	-24.7%
9	고추장	0	539	2,300	1만 576	8,673	-18.0%
10	곡류조제품	82만 6,605	27만 6,843	5,299	4,084	5,898	44.4%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면류 이외의 조제하지 않은 면을 포함하며,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곡류조제품은 팽창시키거나 볶은 것으로 콘플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팽튀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세가 4.3%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조금씩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¹¹⁾

3.2.2. 수입

2014년 한국의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14.7% 감소한 420만 5,264달러였고, 주요 농축산물 수입 품목은 유장으로, 총 수입액의 3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며 최근 유장, 베이커리 반죽, 초콜릿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기타 유지 가공품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외의 동식물성 유지 조제품을 의미하고, 기타 동물성유지는 우각유와 분획물 이외 기타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베이커리 반죽은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제품을 포함하며, 기타 채소는 신선채소가 아닌 채소로 만든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을 의미한다. 한·EFTA FTA 양허안에서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관세를 감축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장은 양허 제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첫 수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수입이 전년대비 96.2% 증가하였다. 베이커리 반죽은 양허 제외 항목임에

표 12 한국의 노르웨이로부터의 농산물 상위 수입 품목

단위: 달러

순위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총 수입	139만 8,364	354만 2,163	525만 1,671	492만 7,785	420만 5,264	-14.7%
1	유장	-	-	-	66만 4,102	130만 2,864	96.2%
2	혼합조제식품	12만 1,070	126만 3,966	190만 6,014	185만 5,980	116만 5,777	-37.2%
3	기타 동물성유지분획물	10만 9,535	16만 8,720	9만 4,629	30만 732	41만 1,300	36.8%
4	베이커리 반죽	11만 0,656	31,624	-	56	20만 3,394	36만 3,103.6%
5	기타유지가공품	18만 39	86만 4,263	151만 8,202	140만 9,993	24만 1,596	-82.9%
6	물	13만 395	14만 9,922	16만 9,307	17만 659	21만 8,327	27.9%
7	기타동물성유지	-	-	4만 5,600	8만 3,600	21만 4,269	156.3%
8	기타채소	15	63만 6,977	117만 9,146	26만 6,014	14만 2,180	-46.6%
9	기타베이커리제품	9만 3,838	91,536	10만 728	54,337	12만 2,997	126.4%
10	초콜릿	119	141	1,111	310	3만 5,191	1만 1,251.9%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1) 한-EFTA FTA 협정문

도 수입이 급증하였고,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8%에서 4.8%로 관세가 감축되었고 수입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타 채소는 18%에서 10.8%로 관세가 감축되었지만 2012년에 비해 수입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¹²⁾

4. 농업정책

농업은 노르웨이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으로, 다양한 농업정책들을 수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증가하는 국제 협약과 규제에 맞춰 정책의 틀을 잡고 있다. 노르웨이 국가 자체가 작은 나라인 만큼 국내 GNP가 교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WTO를 통해 교역상대국 간의 무역장벽 억제 및 국제 무역제도의 균형 유지에 힘쓰고 있다.

노르웨이 농업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고, 사회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농장의 수는 점점 더 적어지고, 규모는 커지고, 특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후사료, 무기질 비료, 농약 및 사일리지 첨가물이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농업정책은 선진국이자 작은 내수경제에 적합한 유기농업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4.1. 통상정책

노르웨이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일반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의 73%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농산물은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관세는 평균 38.7%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노르웨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인 살아있는 동물,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은 편이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나 차, 설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철폐하였다.

노르웨이는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해 계절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EU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자유화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농업인을 보호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노르웨이 내 알코올 및 담배 수입은 국가가 담당하여왔으나, 현재 수입을 개방한 상태이고 알코올류의 소매

12) 한-EFTA FTA 협정문

분야는 국가가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¹³⁾

농업은 수의학과 식물학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y Area, EEA) 협정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지만, 가공식품의 수입관세와 기초 농산물과 관련된 무역은 EEA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제3의정서에서는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기초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규제하고 있다. 본 의정서는 2002년 1월 발효되어 농업 분야 무역에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2년 간격으로 농산물 무역에 대해 제고하기로 하였다.¹⁴⁾

노르웨이는 지역적 경제통상기구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으로서 현재까지 한국과 EU를 포함한 2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기 체결 국가 중에는 튀니지, 레바논,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과 같은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소국들이 있다. 노르웨이는 EFTA를 통해 체결한 FTA 교역 상대국에게 자국의 수산물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하며 수출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4.2. 유기농업

노르웨이의 유기농업의 일찍이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 비교적 적은 수의 유기농장이 운영되었지만 1980년대 초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노르웨이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고, 결국 1997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기농업을 권장하면서 첫 번째 실행계획으로 유기농 우유 생산을 권장함. 매년 실행계획을 제공하여 유기농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점이나 건강 식품점에 의존하던 유통구조를 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제로 전환되면서 유통망이 확대되었다. 쿵(Coop)에서는 현재 유기농식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유럽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들을 도입하여 제품 기준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¹⁵⁾

노르웨이 정부는 일반농가에서 유기농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농업과 관련된 생산자 협회, 연구단체, 고문기구, 인증기구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오이코스(Oikos)는 2000년에 결성된 노르웨이 내 유기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로 유기농 생산 통합을 위한 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 오이코스는 노르웨이 정책, 경제 및 사회에 유기농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노르웨이 유기농 인증기구

13) 주노르웨이 대사관

14) 김선혜(2010). EU와 노르웨이의 관계 보고서

1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Debio”, 유기농 연구기관 “Bioforsk Organix at Tinnvoll”, 농산물 품질 시스템 “Matmerk”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11년 기준 2,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농업인 및 유기농 전문가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제품을 홍보하거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하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장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돕고 학교 내 급식이 유기농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¹⁶⁾ 현재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전체 농업생산과 농산물 소비의 15%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⁷⁾

5. 시사점

유기농업이 성행하면서 최근 노르웨이의 자유당이 면세되는 유기농 식품, 과일, 채소를 제외한 식품 부가가치세를 15%에서 24%로 늘릴 것을 제안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등의 식품들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가 가치세를 올린다고 하지만 농업관련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르웨이 농업경제연구소(Norsk Institutt for Landbruksøkonomisk Forskning, NILF)는 고기와 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시 고기 및 우유 소비가 각각 10%, 5%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노르웨이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면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NILF의 연구원들은 이와 같은 세금제도가 도입되면 4,575개의 농장들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2014년에 전체 농가의 10%가 농업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농부 연합단체는 현재 노르웨이 식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제안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¹⁸⁾

식량안보와 친환경 유기농업 사이의 갈림길에서 노르웨이는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북유럽의 풍요로운 경제 속에서 국내 자급률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좀 더

16) (<http://www.oikos.no/english.aspx>).

17) Hilde Bjørkhaug et al(2013).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n Norway: A statistical analysis of neighbourhood effects, *Geoforum* vol.45.

18) Fresh Plaza, 2014.11.13.

(<http://www.freshplaza.com/article/130843/Norway-Proposal-to-increase-VAT-on-food-threatens-4,500-farms>).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농가 수 감소에 따라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수입 농축산물이 증가하며, 일부에서는 프리미엄 농산물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국의 자급률을 유지하면서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르웨이 자유당의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유기농업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국내 농업을 100%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노르웨이의 교역현황을 통해 양국은 가공식품 위주로 교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 작은 내수시장으로 신선농산물 생산량이 적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농업도 감소하는 추세임이 발견하였다. 현재 한-EFTA FTA에는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자국의 농업에 민감한 양국의 의사가 철저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EFTA와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신선농산물에 대한 관세협상을 재개한다면 수출을 통해 꺼져가는 국내 농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양국 내 유기농업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철저한 인증제도와 검역 수준에 맞는 프리미엄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유럽인근 국가들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노르웨이와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헌. 2010. EU와 노르웨이의 관계 보고서.
한-EFTA FTA 협정문.
- Heidi Knutsen. 2007. Norwegian Agriculture: status and trends 2007. NILF.
- Hilde Bjørkhaug and Arild Blekesaune. 2013.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n Norway: A statistical analysis of neighbourhood effects. Geoforum vol.45.

참고사이트

- 광양시청(http://www.gwangyang.go.kr/01kr/community/index03.jsp?mode=view&article_no=150875&pager.offset=0&board_no=151)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059854>)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http://icals.snu.ac.kr/html/alric/alric_worlddb.asp?flag=READ&idx=58&wd=%C0%AF%B7%B4\(Europe\)&cy=%B3%EB%B8%A3%BF%FE%C0%CC](http://icals.snu.ac.kr/html/alric/alric_worlddb.asp?flag=READ&idx=58&wd=%C0%AF%B7%B4(Europe)&cy=%B3%EB%B8%A3%BF%FE%C0%CC))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3203&cid=42412&categoryId=42412>)
- 주한 노르웨이대사관(http://www.norway.or.kr/News_and_events/press/travel/-/-/)
- 주노르웨이대사관
(http://no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160&seqno=61907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du=&vu=&iu=&du=)
- KOTRA (www.globalwindow.org)
- CIA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o.html)
- Euromonitor (<http://www.euromonitor.com/dairy-in-norway/report>)
- FAOSTAT (faostat.fao.org)
- Fresh Plaza
(<http://www.freshplaza.com/article/130843/Norway-Proposal-to-increase-VAT-on-food-threatens-4,500-farms>)
- Meteorologisk institutt (http://met.no/english/climate_in_norway/)
- Offshore techonoly (www.offshore-technology.com)
- Oikos (www.oikos.no/english.aspx)
- Statistisk sentralbyrå (<http://www.ssb.no/jordbruksareal/>)
- The World Bank: Data (data.worldbank.org)